

과수화상병 사전 대비 점검

농식품부, 영상회의 열고 지역별 추진 현황 점검·향후 방안 논의 개화기 사전 약제방제 추진·지자체 마련 SOP 가상훈련 실시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4일 오후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과수화상병 사전 대비 점검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지역별 예방·예찰 추진 현황과 향후 방제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검역본부, 시·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협경제지주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농식품부 등 참석기관은 동절기(2020. 12월~2021.3월) 예찰 및 병 잠복처(괘상) 제거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개화기(3~5월) 사전 약제방제, 신속한 신고·진단·매몰을 위한 농가 교육, 지자체 단위 표준운영절차(SOP)

마련 및 가상훈련(4월) 실시방안 등을 논의하고 추진키로 했다.

이날 논의된 실시 방안은 ▲곤충 등에 의한 꽃전염 차단을 위해 사과·배 등 과수 주산지별 개화전(1차), 개화기(2~3차) 사전 약제방제를 철저히 추진 ▲병 발생으로 방제명령된 과원의 신속한 진단·매몰 등 방역조치를 위해 지자체별로 마련한 표준 운영절차(SOP)에 대한 가상훈련 실시 ▲사과·배 묘목을 통한 병 확산 예방을 위해 전국 묘목 재배지 등 생산업체 대상 병 감염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 ▲병 발생이 의심될 경우 신속히 신고토록 농가 교육·홍보 강화 ▲발생지역의 작업인력·장

비·묘목의 비발생지역으로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지침에 따라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작업자 및 작업내용을 기록·보관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진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모든 방제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과수농가에서도 개화기 약제방제, 예방수칙 준수, 신속 신고 등 방역 활동을 적극 실천해주시기를 당부하며, SNS, 문자발송, 책자를 통해 방제 적정시기를 알리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장애인이 펼치는 특별한 무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장애인 전기안전의식 향상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 공사는 25일 전북혁신도시 본사 대강당에서 '최종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송지웅 전북도의회 의장, 김승환 전북교육감, 조항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유니버설 안전예술포럼'의 첫 공연 무대를 마련했다. '유니버설 안전예술포럼'은 연기자와 스태프 모두가 장애인들로 구성된 문화공연단이다. 안전에 관한 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 없이, 함께 그 '보편적인(Universal)'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뜻을 담았다.

/김윤상 기자



'농협 창립60주년 기념' 적립식편드 가입 이벤트

NH농협은행 전북본부
내달 30일까지 진행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해농가를 돕기 위해 4월 30일까지 '사랑의 마음, 꽃으로 전해주세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적립식편드에 최소 10만원 이상 가입하고 자동이체(매월 10만원 이상)를 11개월 이상 등록한 고객을 대상으로 총 600명을 추첨해 꽃다발 배송 쿠폰을 지급한다. 당첨자는 5월초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장기요 본부장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펀드 가입고객에게 꽃다발 선물을 통해 따뜻함을 전하고, 꽃 소비 촉진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화해농가를 돕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벤트 관련 문의는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이나 고객센터(☎1600-2800)를 통해서 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소상공인 희생 특별자금 출시

전북도, 도내 5개 금융기관과 '보듬자금' 금융지원 협약

전북도가 송하진 도지사와 도내 5개 금융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위기극복, 소상공인 희생 '보듬자금'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한 5개 금융기관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은행, NH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이다.

코로나19로 폐업위기에 몰린 도내 소상공인 대상으로 맞춤형 피해지원(재난지원금)이 이뤄지고 있으나, 소상공인 희생을 위한 자금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전북도와 금융기관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힘을 모았다.

출연재원은 전북도 20억, 4개 금융기관 35억원 등 총 55억원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660억원 규모(출연금 12배수)의 보증지원을 시행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매출액 감소기업,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임차료 납부 등 3개 분야이며,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보증기간 8년으로 전북도가 3년간 2% 이자차액을 보전해 0.5%대 내외의 저리 융자가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상환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

자금상담은 전북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230-3333)를 이용하거나, 홈페이지(<https://www.jbcredit.or.kr/>)에서 상담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일자, 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유호성 기자

신협, 소상공인 지원 위한 '전문가 자문서비스' 개시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지난 24일 대전 신협중앙회관에서 '신협 소상공인지원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신협은 ▲경영진단 및 마케팅 ▲세무/회계 ▲인사/노무 ▲전통시장 활성화 등 4개 분야별 전문가 29명을 2022년 12월까지 소상공인지원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전문가들은 소상공인 현장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신협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 소상공인에 대한 분야별 자문서비스 등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협은 이들 전문가들의 자문서비스를 통해 유통구조의 변화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역량 강화와 매출 증대, 그리고 비용 절감을 위한 각종 지원 제



도 활용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 자문서비스에 참여했던 이경진(가명) 조합원은 "코로나 때문에 벽에 가로막힌 듯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신협 소상공인지원 자문위원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마케팅 방법부터 네이비버마트플레이스 등록정보 업그레이드, 홈페이지 제작까지 꼼꼼하게 컨설팅해 주었다"며 "덕분에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가게를 운영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만족을 표했다.

/김윤상 기자

지역기업들 "코로나19 재유행이 제일 무서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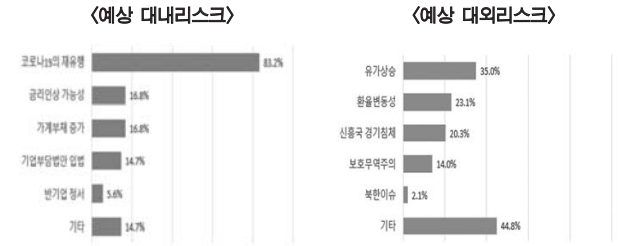
전북상협, 감염병 발생 후 경영환경 인식조사 결과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점차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띄고 있는 반면, 지역기업들의 경영환경은 여전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회(회장 윤방삼, 이하 전북상협)가 도내 14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영환경 인식조사' 결과, 지난해 1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코로나 이전(2019년)과 비교해 불대 응답기업의 10개사 비중 9개사가 영업이익이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기업은 10.5%에 그쳤다.

코로나 이전의 경기상황으로의 회복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83.1%가 '내년 이후를 예상한다'고 답한 가운데, '올해 안에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의견은 15.6%에 불과해 경기 회복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우리 기업들의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대내



리스크로는 '코로나19의 재유행'이 83.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가운데,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코로나가 완전히 통제되기까지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불안요인이 가장 큰 경영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유가와 원자재가격(35.0%), 환율변동성(23.1%) 등도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외리스크 요인으로 꼽혔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의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로는 '국내 4차산업혁명 및 디지털 전환의 속도가 빨라졌다'는 의견이 73.4%를 차지했으며, '코로나19 이후 국내 소득변화'라는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의견이 85.3%로 나타났다.

아울러 선진국과 우리 기업 간의 기술격차로는 '변화 없다'는 의견이 50.3%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과 같은 신흥국의 기술 추격 속도에 대해서는 '더 빨라졌다'는 의견이 52.4%로 조사됐다.

전북상협 윤방삼 회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코로나가 완전히 통제되고 지역경제가 회복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과격적인 규제개혁, 금융·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의식주로 즐기는 치유농업'

농진청, 포털 '농사로'서 '치유농업 활동지원' 서비스 시작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25일부터 시행되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농업기술포털 '농사로'에서 '치유농업 활동지원' 메뉴를 새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치유농업이란 농업·농촌 자원이나 이를 이용해 국민의 신체, 정서, 심리, 인지, 사회 등의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과 산업을 말한다.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돕고자 체계화된 활동지원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이번 메뉴를 구축했다.

새로 제공하는 자료는 '의·식·주'를 주제로 ▲이러닝(전자학습) ▲동영상 ▲액티비티(활동) ▲프로그램 총 4개의 하위 메뉴로 구성돼 있다. 주제인 '의·식·주'에서 의(衣)는 '나를 사랑하고 감사한 마음 나누기', 식(食)은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서로 나누어 먹기', 주(住)는 '생활 속 공감을 생생하게 느끼기'를 의미한다.

이러닝은 치유농업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치유농업의 개념, 치유농업과 식물, 대상별 치유농업 활동 구성 등 총 33편의 동영상으로 구성됐다.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hrd.rda.go.kr)에서 치유농업 이러닝 과정(10차시)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다.

동영상은 구독자가 직접 의식주 주제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영상



이다. 꽃을 이용한 천연 염색 등 '의(衣)' 8편, 새싹채소 기능성 음료 등 '식(食)' 14편, 텃밭정원 식물을 이용한 화환 만들기 등 '주(住)' 7편의 영상을 볼 수 있다.

액티비티는 주제별 활동지를 내려받아 할 수 있다. 입력방법을 이용한 천연 향 추출 등 '의(衣)' 28건, 새싹채소 기능성 음료 등 '식(食)' 27건, 재활용 청바지를 이용한 화분 만들기 등 '주(住)' 41건의 자료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생산, 교육, 기부, 예술, 이벤트라는 5가지 공통체 텃밭정원 주제와 기르기, 만들기, 느끼기 3가지 영역 활동 유형을 담고 있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19회기)'과 '인지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10회기)' 총 2건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식물 특성표, 식물 이름표, 식물 그림카드, 영농 기술정보 등의 자료를 내려 받아 쓸 수 있다.

/김윤상 기자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 조성

전북은행, 경기도와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제휴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이 경기도와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구축·업무협약을 체결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 조성하고 지역 소재 건설사의 금융기관 선택의 폭을 넓힌다.

전북은행은 25일 수도권 금융서비스 확대 지원 및 경기권역 공공건설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오픈하고 경기도와 건전한 하도급 거래 문화 조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지난 2018년 9월 도입한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은 경기도청과 계약한 공공건설사업 업체(원도급)와 하도급대금, 자재·장비 대금, 노무비 청구부터 지급까지 전산으로 구분 관리하고, 전용계좌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낙장지급 등 부조리를 방지하고자 금융기관과 제휴해 운영중에 있다.

대금지급방지 및 적기지급을 통해 건설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취지에 따라 전북은행도 안정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 소재 건설사의 금융기관 선택 제한이 다소 해소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은 "지역은행으로서 제한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전국 단위의 금융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향후 지자체 뿐 아니라 다양한 핀테크와도 지속적인 업무 제휴를 통해 전북은행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영역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2월 전북수출, 3개월 연속 '회복세'

전년 동월대비 3.5% 증가 4억8131만 달러

작년 12월부터 이어진 수출 회복세가 3개월째 이어지면서 올해 전북의 수출 전망이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일)가 발표한 '2021년 2월 전라북도 무역동향'에 따르면, 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한 4억 8131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4억 393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무역수지는 7,738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일부 품목을 제외한 주력 수출품목 대부분이 전년보다 증가한 수출 실적을 보였다.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한 품목은 전년 동월 대비 47.1% 증가한 합성수지(\$5,112만, 47.1%)였으며, 동제품(\$4,292만, 87.3%), 농기계(\$3,403만, 23.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10대 주력 수출품목 중 정밀화학원료, 자동차, 종이제품의 3개 품목 외에는 전년 대비 수출이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9,437만, 15.3%), 미국(\$9,407만, 11.0%), 일본(\$3,370만, 11.0%), 베트남(\$2,868만, 5.0%), 폴란드(\$2,106만, 42.8%) 등 5대 수출대상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또한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멕시코(\$1,224만, 58.1%), 방글라데시(\$941만, 75.3%), 헝가리(\$797만, 212%) 등의 신흥국가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점에 눈여겨 보았다.

이강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은 "전북 수출이 코로나19 위기속에서도 2차전지 동박 제품 등 미래 먹거리 품목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키우는 모습은 긍정적"이라고 언급하며 "자동차, 정밀화학원료, 종이제품 등 전통적인 주력품목들이 수출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다소 아쉽다"고 평가했다.

/김윤상 기자